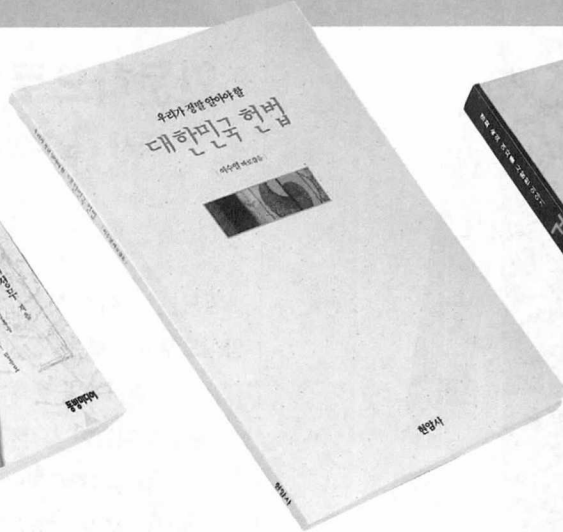


동방미디어/A5신/320면/9000원



현암사/A5신/84면/5000원



시공사/A5변형/284면/10,000원

## 실증과 자료에 바탕 둔 '조선왕조실록학'



“조선왕조실록에는 글과 지식으로 다스리는 문치주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사관들은 국왕과 대신의 잘못을 준엄하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 기록과 사관을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펴낸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997년 9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실무위원회는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기록유산 리스트'에 등재시켰다. 인류전체의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가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62)이 펴낸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동방미디어)는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문헌적 해제로서 우리 것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준다.

“요즘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한 역사서·사극·다큐멘터리 등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얘기를

유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실록 자체의 저술목적·편찬방법·전래과정 등은 모르고 있어요. 일반인과 역사연구자들에게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학'이라 할 수 있다. 역사서로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와 특징, 사회적 기능, 당시의 세계관과 역사관, 실록의 전래과정 등을 실증과 자료에 입각해 밝힌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관통하는 정신으로서 논리보다 선례를 중시한 상고주의, 역사를 통해 시비를 판단하는 춘추필법의 정신을 강조한다.

“조선시대는 법보다는 덕과 도덕으로 다스리는 예치주의 사회였습니다. 그 파수꾼이 대간이었지요. 더 나아가 후대에까지 심판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 바로 왕조실록이었습니다. 사관들은 국왕과 대신의 잘못을 준엄하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기록과 사관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왕조실록은 철저한 기록문화의 전통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현대인들이 선조의 기록문화를 이어받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다. 현재 국가 운영자들은 공문서로만 남길 뿐 중요한 정책결정 회의는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단적인 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회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불신통조가 기록 남기는 것을 꺼리게 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은 결국 정치가 썩지 못하게 하는 감시기능을 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다. 앞으로 흠어져 있는 기록을 철저히 수집해 연구자료를 확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을 대비해 북한 역사학자들과의 자료교환과 인적 교류도 추진할 생각이다. 《조선의 당쟁》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의 감사제도》도 집필중이다.

— 박천홍 기자

## 어법에 맞게 헌법 고친 우리말 지킴이



“모법인 헌법부터 국어를 잘못 쓰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막히고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펴낸 이수열씨

우리 헌법은 엉터리다. 절대분량이 일본어·영어·중국어투의 문장으로 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도 술하게 많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거듭 손질해 만든 헌법이 이 지경이다. 이에 분개한 국어순화운동가 이수열씨(71)는 국어의 바른 사용 용례를 보여주기 위해 수정 헌법을 썼다.〈대한민국 헌법〉(현암사)이 바로 그것.

“모법인 헌법부터 국어를 잘못 쓰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막히고 창피한 일입니다.”

41년 동안 교사로서 국어를 가르친 그의 국어 사랑은 남달랐다. 교과서의 문장이 잘못됐으면 고쳐 가르칠 정도였다. 계간지 〈오문연구〉를 통해 국어 바로 쓰기 운동을 펼친 그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알고 바로 쓰기〉(지문사)를 펴내기도 했다. 지금 그는 개인적으로 각종 매체가 잘못 쓰고 있는 용례를 바로 잡아 호통치는 국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국어 지키기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국어 보호법을 만들면 우리 작가와 출판

사들 벌금 내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부를 향해 국어 지키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는 덧붙여 출판계의 장인정신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성을 다해 만들지 못한 많은 출판물이 국어 오용을 더욱 부추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국어사전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힘이 없었다.

“국어 오용의 첫 책임은 교육에 있습니다. 국어는 없고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어제와 오늘의 교육풍토입니다.”

비록 교단을 떠났지만 그의 국어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올 가을에 나올 〈부실교과서 고발〉(가제, 한겨레신문사)도 그 연장선에 놓인다.

— 오완진 기자

##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쓴 ‘거짓말’



“98년, 국제금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두 남자가 가련할 정도로 처절한 사랑을 나눕니다. 〈거짓말〉은 바로 그 사랑에 관한 애깁니다.”

〈거짓말〉 펴낸  
이상현씨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영화화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책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였다. 작가는 구속되고 서점에 깔렸던 책은 모두 폐기처분된 뒤였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베니스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영화 〈거짓말〉의 남자주인공으로 연기한 이상현씨(45)가 쓴 〈거짓말〉(시공사)은 이런 헤프닝의 중심이 더없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과정의 연속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카로〉지에 의해 21세기 차세대 주요 작가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유명 미술가에서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영화의 남자주인공으로 변신할 때의 당혹스러움, 영화가 완성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그 사이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 미술가로서의 자아와 영화 속의 인물이 혼동되면서 나타나는 분열적 현상까지도 모두 솔직하게 담았다.

“하루의 촬영이 끝나면 마치 치부책을 적어가듯 글을 썼습니다. 책을 내려는 생각도 없었죠. 다만 일기 쓰듯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세번 정도 고쳤습니다. 혹시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촬영 틈틈이 기록한 이 책은 주인공이 쓴 영화 촬영일지면서 한 조각가의 사상적 편력을 다룬 기록이다. 영화 〈거짓말〉을 생각하고 펼쳐든 참이라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의 작업노트가 당황스러울 듯. 최승희와 생태학과 전통적인 민중신앙이 교차하는 그의 작품세계와 〈거짓말〉은 어떻게 해서 한 자리에 놓이게 됐을까?

“그 두 길이 결국 하나로 만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무엇을 찍었을까요? 영화를 둘러싼 이 모든 일은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는 영화를 둘러싼 소문을 씻어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을 썼다고 한다. 그에게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아무런 소용이 닿지 않는 듯.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자신의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일이다.

— 김연수 기자